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24)



오늘, 2017 년 12 월 9 일, 21 시 45 분

네그랄(VR) 공동체에서

쥬세피나 암브로소 수녀님 선종

SR GIUSEPPINA AMBROSO

79 세, 58 년 간 수도생활

대림 2 주일 전야에 교회가 분기도에서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희에게 천상 은총을 자비로이 베푸시어, 저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목자의 사랑의 선물을 믿음 안에서 기다리던 쥬세피나 수녀님은 참된 자유의 상을 받도록 성부께로부터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쥬세피나는 1938 년 3 월 17 일에 모루비오(VR)의 성 베드로에서 태어나 같은 해 보나비치나(VR) 성 필립보와 야고보 성당에서 3 월 24 일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쥬세피나는 3 남 2 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서원 50 주년을 맞이하여 영신수련을 한 후 자신은 신심 깊은 가정에서 나고 성장했음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심 깊은 가정에서, 부모님과 조부님들로부터 신앙과 크리스찬의 가치들을 배울 수 있게 하신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 나옵니다. 어려서부터 저녁에 저의 자매와 형제들과 묵주기도를 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카톨릭 액션 단체의 소속이 되도록 가입시켰고...그 안에서 길, 진리, 생명이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보다 더 가까이 따르는 빠스토렐라 수녀의 성소를 갖게 되었습니다”.

쥬세피나는 1956 년 9 월 2 일에 알바노 라지알레로 입회를 했으며, 1958 년 9 월 2 일에 수련기를 시작하여, 마리아 피오란젤라라는 수도명으로 1959 년 9 월 3 일에 알바노의 모원에서 첫 서원을 했습니다.

쥬세피나는 신심 깊고, 개방적이고 사교적이며 쾌활하고 솔직한 성품과 수도회에 대해 큰 사랑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능력 있고 교육자로서의 인내심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첫 서원 후 아스티의 페레레 공동체로 파견되어 어린이집에서 가르쳤습니다. 1960 년에 면학을 위해 모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1961 년에 트란스아쿠아에, 1962 년에 까르디날레에 파견되어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초기 양성기를 마친 후, 종신서원을 청원하며 선한 목자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온전하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분의 뜻대로 충실하게 따르기를 희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에 의탁합니다”. 주세피나 수녀님은 1964 년 9 월 3 일, 알바노 모원에서 종신서원을 했습니다.

1965 년 종신서원 후, 알파고의 피에베 공동체로 파견되어 여러 가지의 일을 했으며 1970 년 지체리아로 파견되어 원장 소임을 맡았습니다. 1973 년 간호학을 공부하기 위해 알바노 모원으로 돌아와 1975 년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펠트레의 파라 공동체로 파견되었고, 1979 년에는 원장 소임을 맡았습니다. 1992 년에는 로마 악사에서 안식년을 보냈고 1993 년부터 2005 년까지 트렌토에서 “탐보시”어린이집에서 가르치며 가정사목을 했습니다. 1996 년에 원장 소임을 맡았습니다. 이후 네그라르 공동체로 옮겨 여러 가지 소임을 맡았으며, 2007 년 모데나의 성 비오 10 세 성당에서 가정 사목을 했습니다.

2014 년부터 네그라르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작은 소임을 하며 동시에 파킨슨 병을 치료했습니다. 이 병은 점진적으로 악화 되었으며 체력을 손상시켰습니다. 최근에 발열이 있었으나 죽음이 임박한 징후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주세피나 수녀는 어제 밤에도 여느 날처럼 사랑과 정성으로 만든 음식을 받았고, 유머스러운 농담을 하며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평온히 잠을 자다가 심장마비로 자비하신 성부의 품에 안겼으며 “깨어 있는 가운데” 평생을 사랑했고 섬겨온 신랑을 만났습니다.

성부의 자비에 주세피나 수녀님을 맡겨드리며 수녀님께 인류와 우리 수도가족의 친교의 여정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전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주님께 수녀님의 삶과 빠스토렐라의 성소에 대해 감사드리며, 성인들의 통공 안에서 수녀님이 서원 50 주년에 주님께 드렸던 말씀을 되새깁니다: “내 삶의 주님이신 당신께 저희 감사의 마음과 저의 예를 새롭게 드립니다”.

아민따 사르미엔토 뿌엔테스 수녀

총 장

2017 년 12 월 9 일, 로마

성 시로 주교 기념일